

### 찾아가는 문화활동 참여단체 모집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소외계층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참여할 공연 단체를 모집한다.

광주예총은 2012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위해 지난 2월에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노인·장애인·육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장애학교, 문화 소외지역 주민 등 모두 70개 곳을 공연 대상으로 확정했다.

신청분야는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대중예술 등이며 공연회당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광주예총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8일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35개 공연단체가 70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판소리, 뮤지컬, 음악,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했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세계 아리랑 축전 새이름 공모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아리랑 축전'(가칭)과 축전 주제공연인 '넙을 위한 아리랑'(가칭)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세계 아리랑 축전은 한민족의 문화유산인 아리랑을 집대성하고 광주 정신을 담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된다. 주제공연은 아리랑의 정서와 광주정신을 결합해 노래, 연희, 춤, 영상이 어우러진 총체극으로 제작된다.

최우수작에는 각각 5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작, 장려상,佳作 등을 시상한다. 응모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70-79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공공저작물 무료 민간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부터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www.kogil.or.kr)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서비스한다.

이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출처 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화부는 이번 공공누리 서비스를 통해 우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경기문화재단, 포항시청의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국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모두 10개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연계를 예정이다. /연철뉴스

# 지역대표 문화행사 누가 이끄나?

##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논의

## '폴리프로젝트'감독 이달말 결정

## 시립극단, 첫 예술감독 공모

지역 문화계의 흐름을 주도할 주요 수장(首長)들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세계적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수립하는 방향 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28일 광주시 융복합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년 열리는 '제 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엔날레재단측은 현재 총감독 선정 자문위원회의 등을 통해 제 4회 디자인비엔날레때 시도된 총감독과 외국인 감독의 협업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한 명의 총감독이 총괄해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며 이사회에 최종 승인을 거쳐 총감독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계 안팎에서는 고부가 문화브랜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외국인 감독 단독 체제로서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도심 공공시설물인 '2012 폴리 프로젝트'의 전시 기획을 총괄할 감독 선임 문제도 조만간 결정된다.

이미 이탈리아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수직 숲)'라는 건물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인 스테파노 보에

리(Stefano Boeri)와 뉴욕현대미술관(MoMA) 건축 부문 수석큐레이터인 배리 버그돌(Barry Bergdoll) 컬럼비아대 건축사학과 교수 등 4명의 외국인 건축가를 우선 후보군에 올려놓고 최종 적임자 선임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감독의 총괄 기획 아래 추진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지만 한국인 건축가 2명도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어 선부른 예측은 힘들다는 게 비엔날레 재단 안팎의 분위기다.

광주 공연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시립극단의 첫 예술감독도 공모에 들어가는 등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립극단이 광주 대표 브랜드로 꼽을만한 공연 제작 및 지역 연극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출신 인사나 국내 명망있는 문화계 인사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및 광주폴리 프로젝트의 총감독 선임 윤곽이 조만간 드러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1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중 전시된 기아디자인 아트웍스. <광주일보 자료사진>

## 파꽃향이 솔솔~

시골 파밭의 흔하디 흔한 파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을까.

화사한 파꽃의 화가 최향씨가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광주에서는 5년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를 주제로 무안·해남 등지에서 피는 양파꽃 군락을 연두, 노랑, 보라, 분홍, 파랑 등의 감각적인 빛깔로 표현한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60호~100호 이상 크기가 큰 작품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특히 받은 본인 특유의 '페인팅 나이프로 유화 물감을 화면에 바른 뒤, 다시 조금씩 떼내면서 독특한 질감

## 최향 초대전

22일~4월 4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은 '시각의 향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려하고 파꽃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오밀조밀하게 그려낸 꽃들의 입체감도 도드라진다.

최씨는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원, 뉴욕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을 가졌으며 헝가리 기오르 비엔날레 한국전, 한·일국제현대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문의 062-222-8053.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봄향기 가득실은 '문화통& Asia'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 Asia' 봄호가 나왔다.

특집 기사는 '집중탐구-무등산'이다. 범대순(시인), 김덕진(광주교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무등산과 시인, 무등산과 화가, 무등산과 사람, 무등산과 불교, 무등산과 야생화, 무등산과 등산로, 무등산과 무등길 등 7개 파트로 나눠 집필했다.

또 다른 특집인 '아시아 각국의 음식'에서는 한국·일본·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몽골 등 8개국의 대표음식과 특징을 살렸다.

권두인터뷰로 아시아문화개발원장으로 취임한 이영철 원장을 만났으며 전라도문화수계가는 함평 고막연 독다리의 700년 비밀을 살렸다.

이밖에 2012광주비엔날레 이모저모, 오는 6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 30회 광주연극제 소식 등이 실렸다. 그밖에 차세대 스타로 뉴욕 독립영화제 다큐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신은정씨를 만났으며 제 1회 광주메멘 대상 수상자인 박재홍 영모에다움 회장과의 인터뷰도 담았다. 1만원. 문의 062-226-1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미향의 피리 풍류

22일 '목요 국악한마당' 무대서

피리 연주자 전미향(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단원·사진)씨가 광주시 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22일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

'도리'(지방에 따라 독특하게 구별되는 노래 방식)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각 지방의 다양한 민요를 피리로 들려준다.

전씨는 남도 민요의 대표곡인 '육자배기'를 거문고와 피리 연주로 선사하며 산조 합주를 거문고와 아쟁, 피리가 함께 연주한다.

또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서도 민요를 피리 연주로 들려주며 해금·가야금·대금·피리가 경쾌한 경기민요를 선사한다.

광주예고와 청주대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국악 실내악 그룹 '황토제' 대표를 역임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